

생태적인 복원을 위한 두루미의 전통적 상징성 고찰

Traditional Symbolism of Red-crowned Crane for Ecological Restoration

2021. 12. 31

박신영 (특정주제 연구자)



재단법인 숲과나눔

Korea Safety Health Environment Foundation

제 출 문

재단법인 숲과나눔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생태적인 복원을 위한 두루미의 전통적 상징성 고찰”의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연구원 : 박신영(특정주제연구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재)숲과나눔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초록

연 구 원	박신영		구분	특정주제연구자
연구제목	한글	생태적인 복원을 위한 두루미의 전통적 상징성 고찰		
	영문	Traditional Symbolism of Red-crowned Crane for Ecological Restoration		
연구기간	2021. 3. 1. ~ 2021. 8. 31.			
색인어	한글	두루미, 깃대종, 상징성, 관계성, 보전, 전통생태지식		
	영문	Red-crowned Crane, Flagship Species, Symbolism, Relationality, Conservation,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국문 초록〉

생태적인 복원이 갖는 가능성은 물리적 환경의 재건뿐만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이 맺었던 관계성의 회복을 포함한다. 복원된 생태계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비인간의 상호작용과 순환을 고려한 ‘관계성’이 형성되어야 한다. 인간-비인간 관계성은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인간의 위치를 규정하며, 생태계의 보전은 이 관계성이 유지될 때 지속할 수 있다. 두루미류의 서식 환경을 효과적으로 복원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두루미류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지식과, 서식에 필요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두루미류와 공존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인식의 기반이 함께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문헌, 문학, 예술작품 등을 통해 과거 두루미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고 두루미도래지 주민의 구술을 통해 현대에 단절되고 전승되는 양상을 검토하여 두루미와 공존하기 위한 기반이 될 인식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두루미의 강력한 상징성은 종의 외형적 특성과 생태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화적 측면에서는 대체로 생물로서 인식되기 보다는 상징으로서 소비되는 경향을 보였다. 두루미의 생태에 관한 지식이 활용된 영역은 두루미를 사육하고자 했던 경우와 두루미를 식품 또는 공예품의 재료로 이용하고자 했던 경우에 불과하였다. 다만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두루미를 귀하게 여겨온 가운데, 일본에서는 귀한 두루미를 진상하기 위해 사냥을 일삼아 개체군을 위협했지만, 한반도에서는 두루미에 대한 사랑과 공경이 두루미를 보호하는 효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

두루미의 상징성은 두루미 본연의 외양과 생태에서 비롯한다. 특히 두루미가 사람과 떨어져 골짜기에 은둔하며 지내는 모습은 세속에 연연하지 않고 고고함을 지키는 은자와 같아 두루미에 대한 환상과 동경의 핵심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두루미의 생태적 특성이면서, 사람이 두루미와 공존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인 셈이다. 장수라는 상징성도 마찬가지이다. 서식 환경이 급변하며 생존이 어려워진 요즈음, 두루미가 과거와 같이 장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 사람의 기대수명이 늘어 더이상 두루미를 보면서 장수를 동경하지는 않겠지만, 한때는 장수의 상징이었을 만큼 자연수명이 긴 동물이 제 명을 살지 못하는 것은 비극이다.

한편, 선조들이 백조(白鳥)인 두루미와 백로, 황새, 고니를 명확히 구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을 직접 볼 수 없었던 지역에서는 혼동이 있었을 가능성 또한 다분해 보인다. 송학은 장수를 기원하는 상징적 조합이지만 실제로 소나무 위에 앉는 흰 새들이 있었다. 실제로 두루미와 황새, 백로를 보며 차이를 배우지 못했다면, 백로나 황새가 말로만 들던 ‘송학’이었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 ‘학 학(鶴)’자를 지명에 포함했던 지역의 분포는 두루미의 이동경로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개별 지명의 유래

와 서식 환경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는 ‘학’의 인식이 약해지고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지위가 두루미를 설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지만 두루미와 학은 여러 가지 설화, 우화 등 이야기로 대중에게 매우 친숙한 이름인 만큼, 인식 증진을 위해 조금만 노력하면 깃대종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상징성을 고찰함으로써 두루미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을 이끌어내었다. 하늘을 나는 새에 대한 동경은 근원적이다. 선조들이 두루미에게 신선의 자취를 보았듯 두루미의 땅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우리도 예의 그 학을 만날 수 있다. 두루미에게서 천상의 아름다움과 함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한 옛 사람들이 두루미가 인간계와 선계를 연결했다고 믿었던 것처럼, 하늘을 통해 이 땅과 저 땅을 잇는 새를 귀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인식한다면 이 땅에서도 선계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오랜 길상의 상징, 두루미를 통해 다시 새들을 볼 때다.

〈Abstract〉

The potential of ecological restoration includes not only the reconstruction of the physical environment but also the rest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onhumans. In order for the sustainable restored ecosystem, a 'relationality' must be formed that considers the interaction and circulation between humans and nonhumans. Human-nonhuman relationships place humans as members of ecosystems, and the conservation of the ecosystem can be sustained when these relationships are maintained. In order to effectively restore and conserve the habitat for cranes, social and cultural awareness to promote coexistence with cranes as well as knowledge about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cranes and technology to make the environment necessary for habitation are required. In this study, I explored the perception of Red-crowned Cranes in the past through literature and works of art and collected the recognition that will be the basis for coexistence with cranes by reviewing the patterns cut off and handed down to these days.

Although the strong symbolism of the Red-crowned Crane seems to be derived from the appearance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pecies, in terms of culture, Red-crowned Crane tends to be consumed as a symbol rather than recognized as wildlife. The area where knowledge about the ecology of cranes was utilized was only in cases where the purpose of cranes was breeding and materials for food or crafts. However, while Red-crowned Cranes have been valued in East Asian cultures, Japan threatened the population by hunting to present them, but on the Korean Peninsula, love and respect for cranes have had the effect of protecting them.

The appearance of a Red-crowned Crane living in seclusion in a valley away from people is like a hermit who maintains nobility without being attached to the world. This is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 of cranes, and it is the minimum condition that humans must observe in order to coexist with cranes. The symbol of longevity is the same. These days, where survival has become difficult due to rapid changes in habitat, it has become difficult for cranes to live as long as in the past. As human life expectancy has increased, we will no longer admire longevity by looking at cranes, but it is a tragedy that an animal with a long natural lifespan, which was once a symbol of longevity, cannot live its life.

On the other hand, although it seems that the ancestors clearly distinguished the Red-crowned Crane, the stork, the egret, and the cygnus. there is also a possibility that there was confusion in the area where they could not find the species. Songhak (Pine tree and Red-crowned Crane) symbolizes longevity, but there were actually white birds perched on pine trees. In other words, if you did not learn the difference by watching cranes, storks, and egrets, egrets or storks may have been the 'Songhak' that only heard in words. In addition, the distribution of regions where the word 'Hak (鶴)' was included in the place name in the past appeared similar to the migratory route of the cranes, but it is necessary to additionally review the origin and habitat environment of each place name.

These days, the recognition of 'Hak' is weakened, and the status of 'natural monument' and 'endangered species' tends to explain the Red-crowned Crane, but as the crane and 'Hak' are very familiar names to the public through various stories and fables. With a bit of effort to raise awareness, it can be effectively used as a flagship species.

In this study, the points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live with cranes were drawn by examining the symbolism. The longing for flying birds is fundamental. Just as our ancestors saw the traces of the gods from the cranes, we can meet the old cranes as long as the cranes' habitats are protected. Just as the ancient people who discovered the beauty and humanity of cranes in the heavenly world believed that cranes connected the human realm and the fairyland, if the birds that connect this land and that land through the sky are recognized as precious and mysterious beings, then it would not be impossible to meet the fairyland on this earth as well. It is time to see birds again through the crane, a symbol of long auspiciousness.

요약문

I. 제목

- 생태적인 복원을 위한 두루미의 전통적 상징성 고찰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두루미는 깃대종이자 우산종으로서 생태계 보전에 중요하고 두루미를 목표로 한 서식지 복원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두루미 개체군 존속을 위한 인식적 기반에 대한 연구는 미약하다. 과거에 학(鶴)으로서 강력했던 두루미의 상징성과 전통 지식을 수집·분석함으로써 현대의 두루미에 대한 인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알아보고 사람과 두루미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두루미의 생태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왕실의 기록과 문인들의 저서, 그림, 지명을 포함한 고문헌자료를 분석하고 면담을 수행하여 과거 두루미에 대한 인식과 현대에 달라진 인식을 이해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는다. '학'을 구분할 때 혼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두루미에 대한 과거의 인식을 조명하는 데 주요한 주제인 만큼, 일제강점기 지명을 통·폐합하기 이전인 구한말의 지명 중 '학 학(鶴)'자를 포함한 지명을 분석하여 학 지명이 두루미 이동경로 또는 백로의 서식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IV. 연구 결과

두루미의 상징성은 신선사상과 장수(長壽), 고고한 은자로서의 선비정신, 태자의 상징, 길상의 영물, 아름다운 춤, 우리 민족, 부부 금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두루미의 인상적인 외양과 우아한 몸짓, 우렁찬 울음소리, 고요한 질서 가운데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생애는 행복, 정절, 고매한 기상과 같은 인류에게 중요했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상징성은 고대부터 문화·예술 분야에 깊이 침투하였으며 두루미는 용, 봉황과 같은 신비로운 상징으로서 시, 그림, 도자기, 의복, 혼례, 왕실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 활용되었다.

두루미에 대한 전통 지식은 생물로서의 두루미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였다. 두루미의 상징성은 두루미의 형태적, 생태적 특성을 바탕으로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루미를 생물로서 인식한 측면은 약해 두루미와 공존하기 위한 전통 생태 지식은 거의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두루미를 기르기도 하여 두루미의 성질에 대한 이해와 사육 방식, 식용 문화, 수공예 문화, 낚시 예측에 대한 지식을 일부 발견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현대 과학의 발견과 대조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구한말 '학 학(鶴)'자가 포함된 지명을 근거로 두루미의 분포를 추정한 결과, 두루미의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루미가 아닌 백로를 '학'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간 보고된 두루미 분포와 백로의 분포를 밀도 추정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鶴’이 포함된 지명은 대체로 두루미의 분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한말 까지 ‘학(鶴)’자가 지명에 남아있던 지역은 백로류의 서식지라기보다는 두루미류의 서식지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두루미에 대한 인식에 ‘학’이라는 상징성이 강력하게 남아있다고보다는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이라는 생물 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두루미 개체 수와 도래지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한국전쟁과 산업화로 인해 전통 인식 전승이 중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오랜 세월 ‘학’이 문화 전반에 영향을 끼쳐온 만큼 길상의 상징성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대중 일반에게 ‘학’으로서의 두루미의 상징성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V.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

두루미에 대한 과거의 생태·문화 인식과 현대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알아본 바는 두루미의 상징성을 상기하고 한반도의 중요한 조류 인식과 상징성의 문화적 명맥을 이어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태적 인식 기반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야생동물과 공존하고 상생과 조화의 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대에, 두루미의 전통적 상징성은 자연에서의 사람의 위치에 대해 본질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두루미의 상징성은 대중 인식 증진과 생태관광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전통 지식은 거의 발달하지 않았지만 지명에 포함된 ‘학(鶴)’자는 후속 연구를 통해 과거의 인식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 차〉

1. 서론	1
가. 연구 배경	1
나.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방법	5
가. 문헌 연구	5
나. 면담	5
다. 학(鶴) 지명과 두루미류 도래 관련성 분석	5
3. 연구 결과	9
가. 두루미의 상징성	9
1) 두루미 이름에 나타난 인식	9
2) 두루미, 선계를 잇는 장수의 상징	9
3) 두루미, 고매한 선비정신의 상징	11
4) 두루미, 왕실의 상징	15
5) 두루미, 길상의 영물	16
6) 춤 잘 추는 두루미	17
7) 두루미, 우리 민족의 형상	18
8) 두루미, 부부 금슬의 상징	18
나. 두루미에 대한 전통 지식	19
1) 성질	19
2) 사육	19
3) 식용	19
4) 수공예	19
5) 날씨 예측	19
다. 과거 지명과 두루미의 분포	20
라. 두루미에 대한 현재의 인식	24

1) 두루미는 길조	24
2) 두루미와 황새, 백로류	25
3) 전통 인식 전승 중단	26
4) 두루미에 대한 현재의 인식 종합	27
4. 결론	29
5. 참고문헌	31

〈표 목차〉

표 1 면담 시 보조자료로 사용한 사진	6
표 2 태자와 관련하여 쓰인 ‘학(鶴)’ 표현	16
표 3 고문헌에서 두루미와 학을 구분해서 해석한 사례	26

〈그림 목차〉

그림 1 두루미	6
그림 2 강변에 앉은 두루미	6
그림 3 두루미와 재두루미	6
그림 4 재두루미 성조와 유조	6
그림 5 재두루미	7
그림 6 겨울철 재두루미	7
그림 7 재두루미 무리	7
그림 8 흑두루미	7
그림 9 황새	7
그림 10 중대백로 둥지	7
그림 11 중대백로	8
그림 12 왜가리	8
그림 13 저어새	8
그림 14 저어새 무리	8
그림 15 두루미를 타는 수성노인	10
그림 16 십장생도	10
그림 17 일출송학도	11
그림 18 십장생 연하장	11

그림 19 노송독학	14
그림 20 쌍학흥배	14
그림 21 단학흥배	14
그림 22 조선시대 학창의를 입은 양반가의 남자 착장도식화	15
그림 23 아집도 대련	15
그림 24 동래학춤	18
그림 25 두루미류의 이동 경로	21
그림 26 구한말 ‘학(鶴)’자가 들어간 지명을 근거로 한 ‘학’의 커널 밀도 추정	22
그림 27 두루미류 분포 자료를 근거로 한 커널 밀도 추정	23
그림 28 백로류 분포 자료를 근거로 한 커널 밀도 추정	24

1. 서론

가. 연구 배경

현대는 명백히 인류 활동이 지구를 지배하는 시대이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흐름은 나타난 지 수세기도 지나지 않아 전 세계를 잠식하였고 급격한 환경 변화를 초래하였다. 막대한 수의 종이 빠르게 절멸하였고,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사물과 맺어온 관계성이 단지 몇 세대 만에 소실되었다. 현대 산업 체계가 사물을 착취하고 소모한 결과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위협’으로 현실화하자, 자본주의적 개발과 성장 일변도의 정책에 대한 반성이 나타났고¹⁾²⁾ 생활에 드는 에너지를 줄이고 자연의 섭리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³⁾ 등 생태계 질서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지속 가능한 인류의 삶을 모색하려는 경향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하였다.

지구에는 45억 년 역사 동안 수많은 생명체가 번성하였다가 멸절하고 다시 번성하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나 인류에게는 수천 년 간 적응해 살아온 유익한 환경이 있고 이것은 인류와 함께 살아온 수많은 동식물과의 공존을 포함한다. 이 유익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인류는 자연의 원리를 탐구하고 인간에게 유익한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며 또, 그렇지 못한 장소는 유익한 생태계로 복원하고자 한다. 특히, 종 소실과 급격한 생태계 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상하며,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편, 인류가 줄곧 이성과 논리에 근거해 내린 결정이 지구생태계를 지금의 위기로 이끌었다는 반성은 생태계 변화에 대하여 인류가 주도하는 조치를 불신하게 한다. 생태계를 보전, 복원, 관리한다는 생각은 인류가 자연을 대상으로 보고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따르기도 한다. 이 같은 주장은 인류가 변화를 위해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선뜻 나서기 어렵게 하지만, 인류가 지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견잡을 수 없이 큰 만큼, 현재 상황에 대한 성찰과 함께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태계의 복원은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각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기 어렵더라도 이전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즉,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이다⁴⁾. 자연에 대한 지식의 축적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생태계의 기술적 복원을 가능하게 하지만 반드시 생태적 가치나 시급성에 따라 복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서식지가 변화 또는 파괴되어 하나의 종으로 정의하기도 전에 멸절해가는 종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절멸을 원치 않는 종은 개체군을 증식하는 등 기술을 동원하여 종의 존속을 연장하기도 한다. 즉, 생태계의 복원과 보전은 가치중립적인 주제가 아니고 태생부터 실행 과정 전반에 걸쳐 인간의 판단과 의지가 개입하는 인류의 행위이면서 수많은 개별자의 행위를 동원하는 사건이다.

생태계 복원은 인류 활동의 실책으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다급한 실천의 방편으로 태동하였다. 생태계의 회복은 절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유익한 특정한 상태를 상정하는 것이다. 생태적인 복원이 갖는 가능성은 물리적 환경의 재건뿐만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이 맺었던 관계성의 회복을 포함한다. 복원된 생태계는 인류가 그로부터 이익의 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고 이 상태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비인간의 상호작용과 순환을 고려한 ‘관계성’이 형성되어야 한다. 결국 인간-비인간 관계성은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인간의 위치를 규정하며, 생태계의 보전은 이 관계성이 유지될 때 지속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생태계 복원에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식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통해 얻는 이익은 인류의 공공재로, 보전은 경제적 수익 중심의 개발과 상충하는 경향이 있다. 생태적 위기가 인류를 위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생태계를 고려한 결정은 경제적 수익 창출에 가장 유리한 안은 아니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과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태계 보전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1) Crutzen and Stoermer (2000) The Anthropocene. Global Change Newsletter, 41

2) Haraway (2015) Anthropocene, Capitalocene, Plantationocene, Chthulucene: Making Kin. Environmental Humanities, 6(1): 159-165

3) IUCN Nature-based Solutions. <https://www.iucn.org/theme/nature-based-solutions> (접속일자 2021년 12월 1일)

4) Society for Ecological Restoration. <https://www.ser-rrc.org/what-is-ecological-restoration> (접속일자 2021년 12월 1일)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깃대종(flagship species)⁵⁾을 활용하는데 주로 인상적인 외모나 생태적 특징 또는 인류의 사회·문화적 양식과 관련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종이다.

두루미과의 조류는 원시 조류의 형태를 간직하고 있고 습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대표적인 물새로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두루미류는 사람들을 매혹하는 효과적인 깃대종이지만 두루미류의 서식지인 습지를 보호함으로써 습지에 깃들여 살아가는 수많은 생물의 터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우산종이기도 하다⁶⁾. 한반도에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두루미는 두루미(*Grus japonensis*), 재두루미(*Antigone vipio*), 흑두루미(*Grus monacha*) 3종으로 이들은 상당수의 개체가 한반도에서 월동한다. 이중에서도 두루미는 고금을 막론하고 동아시아에서 널리 사랑 받아왔으며 문화·예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밀렵, 농약과 습지 파괴 등 서식환경 변화로 두루미는 전 세계에 2,300여 마리 밖에 남지 않아 IUCN의 기준에 따르면 VU등급으로 분류되었다⁷⁾. 개체의 약 절반은 러시아와 중국에서 번식하고 한반도와 중국에서 월동하고 나머지 절반은 일본에서 사계절 내내 머무르는데⁸⁾, 과거 일본에 도래하는 두루미 개체 수는 많지 않았으나 북해도 지역의 서식지 보전과 종 보호 활동으로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좁은 면적에 많은 수가 밀집해 있어 전염병 등에 취약할 것이 우려되는 만큼 서식지 분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두루미류 3종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두루미 개체군 보호를 위하여 서식지 보전에 힘쓰는 한편, 개체 증식을 위하여 두루미 복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두루미류의 전통적인 월동지이자 기착지로 두루미류 서식에 적합한 지리·지형적 요소가 발달하여 두루미 서식 환경을 조성할 경우 두루미 개체군 존속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두루미 서식지 보전과 복원을 위한 기술력에 비해 인식 증진을 위한 노력은 미미하다. 두루미는 과거 상서로운 새로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두루미를 관측하기조차 어려워 대중은 두루미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길상이라는 전통적인 상징성과, 거대한 몸집에 희고 아름다운 외형은 깃대종으로서 두루미의 지위를 여전히 굳건히 하기에 충분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생물이 아닌 만큼, 인식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두루미의 상징성이 현대에 강력하게 전승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반도에서 두루미는 수천 년 동안 사랑받아온 역사가 있다. 한반도에 도래하는 두루미 개체 수가 줄었듯 과거의 인식 또한 미약해졌지만 아직도 겨울이면 한반도를 찾아오는 두루미 무리가 있다. 두루미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두루미 개체군 존속과 그로 인한 인류의 존속에 이로운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문헌, 문학, 예술작품 등에 남은 두루미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고 두루미가 많이 서식했던 지역민의 구술을 통해 현대에 단절되고 전승되는 양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두루미와 공존하기 위한 기반이 될 인식을 발굴하고자 한다. 야생생물과의 공존에 관한 지식과 인식은 문화적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야생생물의 생태 특성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인식적 기반으로 현대에도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 사람과 두루미는 같은 공간을 점유하며 오랜 기간 서로에게 적응하며 살아온 만큼 전통적인 인식의 토대에서 두루미와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5) UNEP (1992) Guidelines for Country Studies on Biological Diversity

6) Kim, Park, Kim, and Lee (2021) Identifying high-priority conservation areas for endangered waterbirds using a flagship species in the Korean DMZ. Ecological Engineering, 159(5365)

7) BirdLife International (2021) Species factsheet: *Grus japonensis*. Downloaded from <http://www.birdlife.org> (접속일자 2021년 12월 1일)

8) Ibid.

나.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두루미류의 서식 환경 복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두루미류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지식과, 서식에 필요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두루미류와 공존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인식의 기반이 함께 필요하다. 두루미는 오랜 옛날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 두루미와 공존하는 가운데 각종 상징체계와 인식이 발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두루미류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과거의 인식 또한 소실될 위험에 처해 있다. 야생생물과의 공존에 관한 지식과 인식은 문화적 가치가 크고 야생생물의 생태 특성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어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인식적 기반으로 현대에도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

두루미에 대한 과거의 인식과 지식은 왕실의 기록, 문인들의 저서, 그림과 지명 등 기록물에서 두루미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알아봄으로써 엿볼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두루미와 황새, 백로, 고니 등 흰 깃털을 가진 새들을 구분하지 않고 ‘백조’라고 했다고 하지만 후대에는 두루미는 한자 ‘학 학(鶴)’자로, 황새는 ‘관(鵠)’, 백로는 ‘로(鷺)’, 고니는 ‘곡(鵞)’자로 표기하여 새들을 구분하였다. 두루미와 황새, 백로, 고니는 습지에서 서식한다는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생태적 특성은 꽤 다르다. 두루미는 겨울에 한반도를 찾는 이동성 조류이지만 황새는 여름에 한반도를 찾아 둥지를 짓고 번식활동을 하고 한반도를 떠난다. 백로는 목이 구부러져 있고 큰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여름에 집단번식하고 고니는 겨울에 한반도를 찾아 물 위에서 유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어떠한 점에서 사람들에게 다르게 인식되었는지 문헌에서 쓰임의 맥락을 알아봄으로써 구분할 수 있다.

한편, 과거의 그림에서는 그림의 주제와 그림에 나타난 묘사를 통해 두루미와 인간의 관계성을 짐작할 수 있고, 그림의 제작 목적과 작가의 정보를 통해 두루미의 상징성을 추론할 수 있다. 지명에는 역사, 지리, 문화 등 지역 특성과 사회 문화가 반영되는 바⁹⁾, ‘鶴’자가 남아있는 지역은 두루미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며 지명이 변경되었고, 고유의 의미를 잃어 현재 전하는 지명에는 원래 지명의 정보가 생략되었지만 과거의 지명을 살펴보면 두루미의 분포를 추정할 수 있고 ‘두루미’의 의미를 잃은 지역에서도 두루미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구 학문 세계에서도 자연과 인간을 구분하던 이분법적 사고의 맹점을 인정하고 관계 속에서 현상을 이해하는 경향으로 이행하며, 현대에 들어 잊혀졌던 전통생태지식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전통생태지식은 생태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해석하고 대응하는 가운데 형성된 지식-행동-신념의 복합체 지식 체계이다¹⁰⁾. 주로 지역 생태계내의 다양한 생물자원을 생활이나 생업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며, 세대를 거치면서 발전, 전승된다는 특징이 있다¹¹⁾. 전통생태지식은 민속학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탐구되었으나 생태학적 관점의 확장을 통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생태시스템의 회복력을 갖추기 위한 지혜로 활용할 수 있다¹²⁾. 전통생태지식은 속담, 민담과 같은 형태로 구전되거나 관습 등으로 나타나고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지만, 생물과 환경에 대한 지식과 통찰이 생존과 강하게 결부되어 나타난다. 첨단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람의 감각과 판단으로 물리 및 생물 환경을 해석해온 과거의 인식과 지혜가 담긴 전통생태지식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기록이며 지역 기반의 환경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현대에도 의미가 있다. 또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각국은 경쟁적으로 생물 자원의 발굴과 전통생태지식 수집에 투자하는 등 전통생태지식은 경제적 기준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9) 조성욱 (2007) 사회적 영향에 의한 지명변화의 원인과 과정 -전북 진안군 지명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5): 526-542

10) Berkes et al. (2000) Rediscovery of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as adaptive management. Ecological Applications, 10(5): 1251-1262

11) Berkes, Davidson-Hunt (2006) Biodiversity, traditional management systems, and cultural landscapes: Examples from the boreal forest of Canada.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8: 35-47

12) Gómez-Baggethun, Reyes-García, Olsson, Montes (2012)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and community resilience to environmental extremes: a case study in Doñana, SW Spain.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2: 640-650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의 기록으로부터 두루미에 대한 당시 지식과 인식을 수집하여 두루미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인식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사람과 두루미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한국고전종합DB에서 ‘鶴’을 키워드로 입력하여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964건, 신역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42건, 승정원일기에 등장하는 6,159건을 검토하였고, ‘두루미’를 키워드로 입력하여 고전번역서에 등장하는 110건, 조선왕조실록의 12건, 신역 조선왕조실록 1건, 승정원일기 11건, 일성록의 1건을 검토하였다. ‘학(鶴)’ 또는 ‘두루미’의 의미 또는 쓰임에 따라 분류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지역문화 등 전통문화기록데이터베이스에서 두루미를 나타내는 한자 ‘학(鶴)’자, ‘두루미’, ‘학’을 주제어로 검색하여 두루미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였다. 문화 및 예술 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https://culturecontent.com>)의 ‘학’과 ‘두루미’ 자료를 참조하는 가운데 각종 전시회자료, 민속자료, 신문기사, 문학작품, 한국 근대사 기록 등에서 두루미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였다. 그림에 나타난 두루미와 그 맥락에 대해서는 박정애¹³⁾와 허균¹⁴⁾을 참조하여 해석하였다.

나. 면담

2021년 6월 두루미 도래지 주민과 두루미 관련 전문가를 면담하였다. 한반도의 주요 두루미 도래지인 파주 민통선 내 주민 6인, 철원의 지역 전문가인 주민 2인을 면담하며 두루미와 관련된 경험과 인식을 수집하였다. 주민을 면담할 때에는 두루미를 본 기억이 있는지, 두루미를 언제, 어디에서 보았는지, 두루미에 대한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지, 두루미를 사냥하거나 먹은 기억이 있는지, 두루미에 대한 설화나 행동양식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질문하였으나 자유로운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와 황새, 중대백로, 왜가리, 저어새의 사진을 제시하며 어떤 종류의 새를 보았는지 구술자가 기억하는 두루미는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였다. 지역 전문가를 면담할 때에는 두루미가 이 지역에 많이 찾아왔는지, 과거에 비해 현재 두루미 개체 수는 어떠한지, 지역에 내려오는 두루미 설화나 지역민들이 두루미에 대해 특별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역민들이 두루미를 보호하고자 노력하는지를 중심으로 질문하였으나 자유로운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류학자, 학춤전승자, 두루미 서식지 관리 공무원, 두루미 종 복원 전문가, 향토사학자를 만나 두루미에 대한 과거의 인식이 어떠하였는지, 전하는 전통생태지식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다. 학(鶴) 지명과 두루미류 도래 관련성 분석

‘학(鶴)’자를 지명에 포함하고 있는 지역에는 두루미류가 도래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황새나 백로를 ‘송학(松鶴)’으로 칭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명만 보고는 해당 지역이 어떤 새의 도래지였는지 알기 어렵다. 지명에는 지역의 인문·자연 지리적 요소가 반영되기 마련이지만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 지명의 의미와 상관없이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며 지명이 무의미하게 개칭되었다. 지역의 중요한 지리적 특성이 지명에 반영된 남아있는 최신 지도를 구하기 위하여 일제 강점기 이전의 구한말 지도를 검색하였다.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시스템¹⁵⁾에서 구한말 지도를 선택하여 ‘학(鶴)’자를 부분 포함하고 있는 지명을 추출하였다. 국내에 도래하는 두루미류와 백로류의 GPS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행동권 범위를 밀도 예측하였다. ‘학(鶴)’자를 포함한 지명의 위치 정보를 지도에 중첩하여 나타내고 이동성 조류는 해마다 일정한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는 특성에 착안하여 두루미와 백로의 이동 경로 및 행동권 지도와 대조하였다.

13) 박정애 (2012) 조선 후기 회화에 나타난 鶴의 이미지와 표현 양상. 미술사연구 2012(26): 105-137

14) 허균 (2006) 『허균의 우리 민화 읽기』 북폴리오, 서울

15)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시스템 <https://www.atlaskorea.org>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밀도 추정(Density estimation)은 관측된 데이터의 확률 분포 특성을 추정하여 데이터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커널 밀도 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은 비모수적 밀도추정 방법으로 커널함수를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Silberman's rule of Thumb을 기반으로 반지름을 추정하였다.

$$SearchRadius = 0.9 * \min \left(SD, \sqrt{\frac{1}{\ln(2)} * D_m} \right) * n^{-0.2}$$

D_m 은 포인트간의 평균 중심값의 중앙값이고 n 은 포인트 개수이며, SD 는 표준거리이다.

QGIS 3.16을 활용하여 커널 밀도 추정을 시행하였다. 추정된 값에서 95% 이내의 커널 밀도 추정값을 95% KDE로 정의하였고, 동물의 행동분석에서 95% 이내 KDE 값은 행동권으로 정의한다.

표 1 면담 시 보조자료로 사용한 사진



그림 1 두루미



그림 2 강변에 앉은 두루미



그림 3 두루미와 재두루미



그림 4 재두루미 성조와 유조



그림 5 재두루미



그림 6 겨울철 재두루미



그림 7 재두루미 무리



그림 8 흑두루미



그림 9 황새



그림 10 중대백로 둥지



그림 11 중대백로



그림 12 왜가리



그림 13 저어새



그림 14 저어새 무리

3. 연구 결과

가. 두루미의 상징성

1) 두루미 이름에 나타난 인식

두루미는 ‘뚜루 뚜루루-’하고 우는 울음소리에 ‘(-ㄱ)이’를 붙여 만들어진 이름이다. 한자 이름은 학(鶴), 정수리가 붉은 형태 특징이 나타난 단정학(丹頂鶴)으로 불리었으며, 도교에서 ‘신선이 타고 다니는 새’로 형상화되어 선학(仙鶴), 선금(仙禽), 노금(露禽), 태금(胎禽)이라고 불리기도 하였고, 개금(介禽), 음우(陰羽)라고도 한다¹⁶⁾.

2) 두루미, 선계를 잇는 장수의 상징

현대의 두루미 수명은 평균 15년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과거에는 50-60년 정도로 장수하였다고 한다. 도교의 불로불사의 낙원을 묘사한 요지연도(瑤池宴圖) 등을 보면 장수의 상징인 수성노인(壽星老人, 남극노인, 남극선웅)이 두루미를 타고 오는 것이 나타나 있다(그림 15). 구름과 함께 그려진 운학(雲鶴)은 신선계를 의미했다고 한다. 고구려 고분벽화나 조선시대 민화 등에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른바 승학신선도(乘鶴神仙圖)에는 신선이 학을 타고 날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최표(崔豹)의 고금주(古今注)에는 두루미가 천 년이 되면 청학(靑鶴)이 되고 또 천 년이 지나면 현학(玄鶴)이 된다는 표현이 있다¹⁷⁾. 천 년 이상을 산다는 상징을 얻은 두루미는 십장생 중 하나로, 다양한 예술작품에 장수의 상징물로 표현되었다(그림 16).

“2년에 잔털이 떨어져 검은 점으로 변하고 3년에 머리가 붉게 변한다. 7년에 은하수를 치고 날며 또 7년에 춤을 배우고, 다시 7년에 절도를 터득한다. 밤과 낮으로 12번 울며, 60년에 큰 털이 빠지고 못 털이 무성해진다. 색은 눈같이 희어서 진흙탕에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160년에 암수가 서로 만나 눈을 마주쳐 주시하면 잉태한다. 160년간 물을 마시지만 먹이는 먹지 아니한다. 물을 마시기 때문에 부리가 길고 앞은 흰 칠하고 뒤는 짙다. 땅에 깃들기 때문에 다리가 길고, 꼬리는 추레하다. 구름 위를 날기 때문에 털은 풍성하나 몸은 갇말랐다. 1100년에 모양이 넓어지고, 갈 때는 물가에 의지하며, 그칠 때는 반드시 수풀에 모인다. 날개 달린 동물의 우두머리이며, 선인이 타고 다닌다.”

-상학경기(相鶴經記)-

“해와 달은 항상 임하여 비추고, 산과 내는 변하거나 움직이지 않네. 대나무와 소나무는 눈이 와도 끄떡없고, 거북이와 학은 백세를 누리네. 흰 사슴은 모습이 실로 깨끗하고, 붉은 영지는 의사귀 또한 기이하네. 장생에 깊은 뜻 있으니, 신이 또 사사로이 은혜를 입었네.

[日月光常照 山川不變移 竹松凌雪霰 龜鶴稟期頤 白鹿形何潔 丹芝葉更奇 長生深有意 臣亦荷恩私]”

-성현(成俔), 허백당집(虛白堂集)-

두루미는 장수를 기원하는 그림에 매화, 소나무, 불로초, 사슴, 붉은 해, ‘목숨 수(壽)’자 등 장수의 상징과 함께 표현되었다. 민화나 자수에 두루미의 머리를 붉게, 목과 꼬리깃을 검게 표현하여 두루미의 전형적인 형태적 특징을 정확히 묘사하였으나 두루미가 소나무에 앉아 있거나, 목을 S자로 구부리고 날아가는 등 두루미류의 특성과는 무관한 모습을 그린 경우가 다수 있는데, 이는 두루미의 생태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장수의 상징으로서 두루미를 활용한 것이다. 소나무와 두루미의 관계는 기러기와 갈대, 백로와 연꽃과 같이

16) 정종우 외 (2016) 해제로 보는 조선시대 생물자원 3 조선후기①(18세기). 국립생물자원관

17) 정민 (2014) 새 문화사전. 글항아리

화조화(花鳥畵)에 정형화된 관계로 나타난다. 과거부터 전해 내려온 ‘학수천년(鶴壽千年) 송수만년(松壽萬年)’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소나무와 두루미는 장수를 상징하는 짝으로 제시되었다(그림 17). 장수를 기원하는 장생도는 궁중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병풍, 공예품, 베갯모 등의 문양으로 널리 사용되었고 두루미는 인기 있는 소재였다. 오늘날에도 십장생도는 장수와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흔히 그려지고, 매년 발행하는 연하장에서 십장생도를 보기 어렵지 않다(그림 18). 한편, 일본에서 유래한 화투패 그림에도 두루미와 소나무가 함께 그려져 있는데, 소나무 가지의 ‘신(薪)’ 자가 새해(新年)를, 두루미가 장수(長壽)를 뜻하여 ‘신년익수(新年益壽)’, 즉, 새해에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나타낸다¹⁸⁾.



그림 15 두루미를 타는 수성노인(요지연도(瑶池宴圖)-부분, 심사정 작, 조선19세기, 경기도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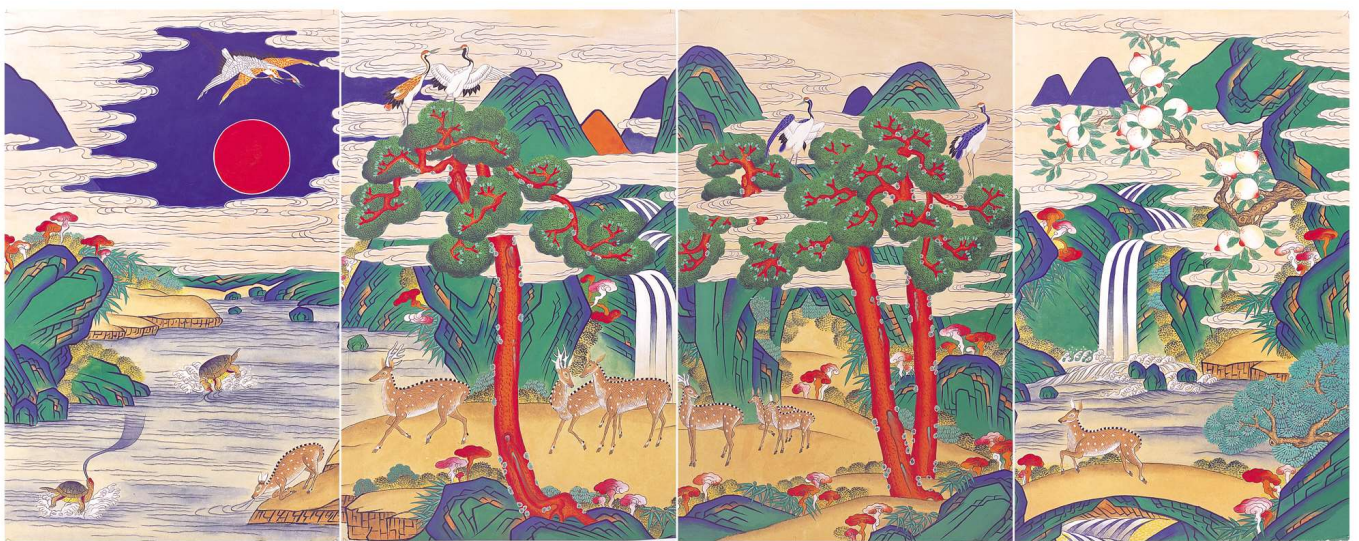


그림 16 십장생도(사단법인 한국전통민화연구소 소장)

18) 조용진 (2014) 동양화 읽는 법. 집문당



그림 17 일출송학도(겸재 정선 作, 17세기, 국립중앙 박물관 소장)



그림 18 십장생 연하장(©바른손그리팅스, 2019)

3) 두루미, 고매한 선비정신의 상징

한적한 골짜기에서 유유자적하는 두루미의 모습이 고매한 선비의 모습을 닮았다하여 두루미는 학자의 표

상으로 쓰이기도 했다. 미술사학자 허균은 두루미에게서 찾은 선비의 이상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세속을 떠나 은거하면서 절의와 명문을 지키는 은일처사(隱逸處士)의 심상을 투영한 두루미는 흙모의 대상이었다... 상고주의(尙古主義)에 따라, 두루미를 사랑했던 옛 성현들의 고상한 행적을 심정적으로 공유하면서 자기 보완과 인격 수양의 수단으로 삼았다... 문인들은 자신의 고독한 경지를 ‘학고(鶴孤)’, 외진 곳에서 몸을 닦고 마음을 수행하는 선비들을 ‘학명지사(鶴鳴志士)’라 불렀으며, 선비가 은거하여 도를 이루지 못해 탄식하는 것을 ‘학명지탄(鶴鳴之歎)’이라 했다. 이처럼 학은 문인들이 자신과 동일시하고 싶어 했던 대상이기도 했던 것이다.”

-허균, 월간민화-

은거하는 현자의 명성과 덕이 멀리까지 퍼져나간다는 의미를 담은 시경의 시와, 매화를 아내 삼고 학을 아들 삼아 평생을 은거하며 고답을 추구한 송나라 임포(林逋) 등의 고사를 따라 두루미는 ‘세속을 초월한 은자(隱者)’, ‘고고한 자태와 고상한 기품을 지닌 현자(賢者)’의 상징으로 문인들의 정신세계에 자리 잡게 되었다¹⁹⁾.

“학이 구고의 깊은 늪에서 우니, 그 소리가 하늘에 사무친다.

[鶴鳴于九臯 聲聞于天]” -시경(詩經)-

“뭇 꽃들 젖어도 홀로 곱게 피어선/ 작은 정원의 아름다운 정취를 독차지하네./ 그림자 비스듬히 맑은 물 얇은 곳에 비껴 있고/ 그윽한 향기는 황혼 무렵의 달빛 속에서 풍겨 오네./ 서리 같은 흰 학 내려오려다 먼저 눈치 보고/ 분 같은 흰 나비가 안다면 마땅히 애를 끊으리라./ 다행히 나지막히 시 읊조려 서로 친할 수 있으니/단목 악기나 금 술잔 모두 필요치 않다네.

[眾芳搖落獨暄妍/ 占盡風情向小園/ 疏影橫斜水清淺/ 暗香浮動月黃昏/ 霜禽欲下先偷眼/ 粉蝶如知合斷魂/ 幸有微吟可相狎/ 不須檀板共金尊]” -임포(林逋), 임화정집(林和靖集)-

“송나라 때의 임포는 항주 서호의 고산에 은거하였는데 부인도 없고 아들도 없었다. 매화를 심고 학을 기르며 스스로 즐겼는데,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매화로 아내를 삼고 학으로 자식을 삼았다고 말했다.

[宋代林逋隱居杭州西湖孤山, 無妻無子, 種梅養鶴以自娛, 人稱其梅妻鶴子.]” -심사정(沈師正), 선유도(船遊圖)-

학자를 상징하는 두루미는 선비나 문인의 복식에도 나타났는데, 조선시대 때 학자들이 평상시에 입던 학창의(鶴氅衣)는 두루미의 모습을 본떠 만든 옷이다. 또한 고위 관직자, 특히 문관의 관복에는 학을 수놓은 흉배를 달았고 예복이나 제복을 입을 때 뒤에 늘이는 후수에도 3품 이상의 상급관리는 두루미를 수놓았다. 이로써 ‘학반(鶴班)’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다. 선비의 이상향을 표상하는 두루미는 본래 두루미의 고고한 모습과 같이 깨끗하고 기품 있는 기상을 닮고자 한 데서 비롯하였으나 고위 관직자의 품계를 나타내는 사물로 쓰이면서 출세, 입신양명을 포괄하는 상징이 된 것이다. 이는 두루미를 새들 중 가장 높은 품계를 지니는 ‘일품의 새’로 인식하는 것과도 통한다. 구름과 두루미를 함께 그린 운학도(雲鶴圖) 또는 운학문(雲鶴紋)은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기도, 신선 세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청운(靑雲)의 뜻을 갖는 경우도 있어, 벼슬길에서 이름을 크게 떨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 허균 (2019) 선비의 기품과 불로장생의 투영체. 월간민화

“그렇기 때문에 문정공(文正公) 신 김장생(金長生)이 말하기를, ‘옛날 선군(先君)을 따라서 경사(京師)에 가 국자감(國子監) 유생들이 입은 유복(儒服)을 보니, 남색 비단으로 의(衣)를 만들고 청흑색으로 연(緣)을 달았는데, 그 연이 소매 끝까지 달았었다.’라고 하였으니, 이 역시 난삼의 유제로 세속에서 학창의(鶴擎衣)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송정원일기, 고종-

한편, 두루미를 흠모한 나머지 두루미를 기르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 문벌귀족의 이상적인 여가 생활을 묘사한 아집도(雅集圖)에는 두루미가 정확히 묘사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문헌에는 두루미를 기르는 법(홍만선, 산림경제), 춤을 추도록 길들이는 법(이덕무, 이목구심서) 등의 기록이 남아 있고, 두루미를 떠나보내는 슬픔을 글로 남기거나(박세당, 백호전서; 김인후, 하서전집), 두루미를 기르며 자신을 임포(林逋)에 비유하며 은자의 표상인 성현을 따르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기도 했다(조경, 용주유고; 성호, 매학헌서). 한편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의정부, 홍문관, 규장각에서 두루미를 길렀는데, 이는 단순히 구경하며 즐기는 호사스러운 취미는 아니었다²⁰⁾. 사가에서는 두루미를 기르는 것이 개인의 삶의 태도와 지향을 반영한 행위였다면, 관부에서는 그 기관의 위상이나 성격 등을 나타내는 표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²¹⁾.

조선시대에는 학봉(鶴峯) 김성일과 같이 두루미를 호에 넣는 사례도 빈번했다. 지리산 청학동(靑鶴洞)과 경기도 포천의 청학대(靑鶴臺)는 천년을 산 두루미는 청학(靑鶴)이 된다는 이야기를 담은 지명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선처럼 고고하게 살고자 했던 선비들의 의지를 담고 있다²²⁾. 현대에는 두루미를 교조(校鳥)로 지정한 대학교가 학자를 상징하는 두루미를 상기하고 있다.



그림 19 노송독학(老松獨鶴). 고매한 선비의 모습을 닮은 두루미(김홍도 작, 간송미술관 소장).

20) 홍형순 (2020) 조선시대 궁궐에서의 양학(養鶴) 사례.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8(3): 1-10

21) Ibid.

22) 허균 (2019) 선비의 기풍과 불로장생의 투영체. 월간민화



그림 20 쌍학홍배(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그림 21 단학홍배(서울역사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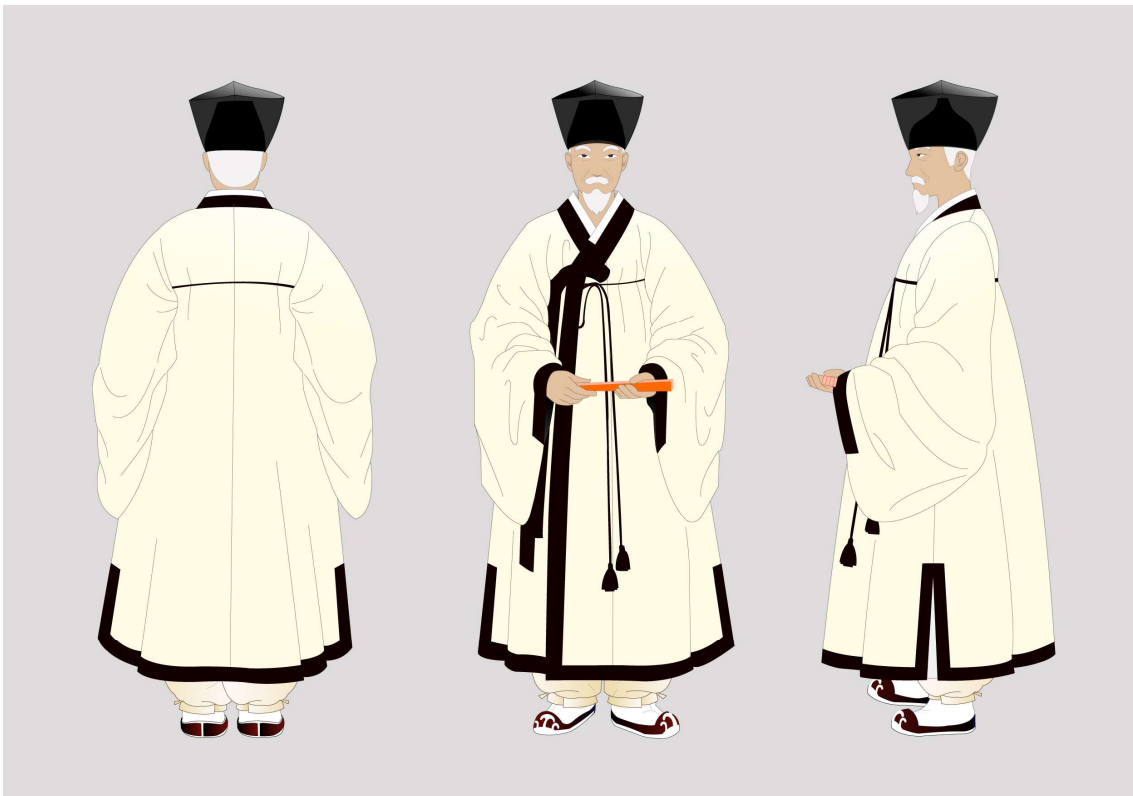


그림 22 조선시대 학창의를 입은 양반가의 남자 착장도식화(한국콘텐츠진흥원)



그림 23 아집도 대련(雅集圖 對聯). 귀족들의 이상적인 여가 생활을 묘사한 그림(부분, 작가 미상, 고려 14세기, 호암미술관 소장)

4) 두루미, 왕실의 상징

두루미를 의미하는 ‘학(鶴)’자는 왕실의 태자와 관련된 표현에 두루 쓰였다. 선비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새 중에 으뜸이라는 상징성이 반영된 듯하다. 또한 『열산전(列仙傳)』 卷上 「왕자교(王子喬)」에는 주 영왕(周靈王)의 태자인 왕자 교(王子喬)가 선인(仙人)이 되어 구산(緱山)에서 백학(白鶴)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전하며, 이것이 태자에게 ‘학’ 표현을 붙인 유래로 전한다.

표 2 태자와 관련하여 쓰인 ‘학(鶴)’ 표현

표현	쓰임	의미
학가(鶴駕)	해처럼 빛나고 봉황 같은 자태로 다시 임하도록 학가(鶴駕)를 밤에 준비하고 태자의 침수에 대해 묻게 되면 기쁨이 일어 팔채(八彩)를 띠고 빛이 온 나라에 생길 것입니다. -승정원일기 인조 中-	태자가 대궐 밖에 나가는 일, 태자의 별칭
학금(鶴禁)	신은 삼가 제잠(鯁岑)을 정성으로 지키어 항상 강녕(康寧)하시라는 축복을 바치우고, 멀리 학금(鶴禁)을 바라보고 빛나고 윤택한 노래로써 봉답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中-	태자가 거처하는 궁궐
학어(鶴馭)	그러나 학어(鶴馭)의 장례를 치르는 날이 되어 공사(公私)와 완급(緩急)의 차이를 헤아리니, 어미의 병이 비록 중하기는 해	태자의 수레, 태자의 별칭

	도 다행히 하늘의 돌보심에 힘입어 다소 수명을 늘이기를 바랄 수 있지만, 영신(靈辰)은 한번 가고 나면 평생의 애통함을 바칠 곳이 없었습니다. -승정원일기 영조 中-	
학위(鶴闥)	하물며 신은 이름이 외람되게 동궁을 보필하는 관직에 올라 있어 마음은 학위(鶴闥)에 걸려 있으니, 발고랑 사이에서 박수 치며 기뻐함이 의당 다른 사람에 비해 배나 더합니다. -승정원일기 고종 中-	태자의 처소

5) 두루미, 길상의 영물

두루미는 상서로움을 상징하기도 했다. 경북 예천에서는 두루미가 마을에 나타나면 과거 급제자가 생길 것을 알려주는 예조(豫兆)로 받아들였다. 강화도령 철종이 임금으로 책봉될 무렵, 영의정 정원용 등 원로대신이 모시러 가자, 강화 나루에 두루미 떼가 날아들었다는 일화는 상서로운 조짐을 암시하는 장치였다. 흥천희 망리 학명루(鶴鳴樓)와 학다리(鶴橋)는 학다리가 완성되는 날 두루미가 날아와서 울었다는 이야기에 따른 이름으로, 두루미를 고을의 길상으로 여겼다.

“임포(林逋)는 항주의 고산(孤山)에 은거했는데, 두 마리의 학을 길렀다. 학은 풀어 주면 구름 위까지 날아올라 한참을 날아다니다가 다시 새장으로 돌아왔다. 임포는 항상 작은 배를 타고 서호西湖 근처의 절들을 찾아 노닐었는데, 혹시 손님이 임포의 집에 찾아오면 동자가 문 앞에까지 나와 손님을 맞이하면서 새장에 있는 학을 풀었다. 그러고 나면 한참 후에 임포가 배를 저어 돌아왔다. 일찍이 학이 나는 것이 손님이 왔다는 경험이 되었기 때문이다.

[林逋隱居杭州孤山，常畜兩鶴，縱之則飛入雲霄，盤旋久之，復入籠中。逋常泛小艇，遊西湖諸寺。有客至逋所居，則一童子出應門，延客坐，爲開籠縱鶴。良久，逋必棹小船而歸。蓋嘗以鶴飛爲驗也。]

-심괄(沈括), 몽계필담(夢溪筆談)-

6) 춤 잘 추는 두루미

두루미는 몸짓 언어가 발달한 새로, 구애, 다툼, 놀이 등 다양한 상황에서 몸짓 언어로 의사소통한다. 과거에는 춤을 잘 추는 사람에게 ‘두루미처럼 춤을 잘 춘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두루미의 춤은 인상적이고 아름답다. 『한비자(韓非子)』 「십과(十過)」에는 춘추시대 진(晉) 나라의 악사(樂師)인 사광(師曠)이 거문고를 연주하자 검은 학이 목을 길게 빼면서 울고 깃을 펴서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궁궐에서는 왕을 송축하며 학 모양의 전신 탈을 쓰고 춤을 추는 궁중 의례로 학무(鶴舞)가 행해진 한편, 민간에서는 선비들이 두루미의 몸짓을 흉내내는 학춤을 추기도 했는데 현재 동래학춤, 양산학춤, 울산학춤이 전한다.

세조가 또 일찍이 피리[笛]를 부니 자리에 있던 모든 종친(宗親)들이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고, 학(鶴)이 날아와 뜰 가운데에서 춤을 추니 금성 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瑣)의 나이가 바야흐로 어렸는데도 이를 보고 홀연히 일어나 학과 마주서서 춤을 추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부묘(祔廟)하고 환궁(還宮)하실 때 여기(女妓)가 가요(歌謠)를 올리는 데에 모든 잡희(雜戲)를 없애

도록 명하셨으나, 학무(鶴舞)만은 가요를 올리기 전에 있으니, 청컨대 제거하지 마소서.”

-조선왕조실록, 성조실록-

삼월삼진날 연자날아들고 호접는 편편/ 나뭇가지 끝에 춘풍은 더척/ 먼산은 가만 간산은 중중/ 기형
은 중천매사리 굴러 천리시내 청산으로 돌고/ 이골물이 쭈르르르 저골물이 쿵쿨/ 여러열두골 물이 한티로 합
수쳐/ 천방자 지방자 얼터져 지그져/ 방울버름이 저건너편 중석오다 팡팡팡 마주세려/ 버름이복적 산이울렁거
려 술렁술렁 떠나간다/ 어디메로 가느냐 암해도 내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있냐 새가 날아든다/ 왼갓잡새 날
아든다 새중에는 봉황새/ 만수문전의 풍년새 삼구곡심 무인천에/ 떠도는 물새들 농천화답에 짝을 지어/ 쌍꽃
쌍내 날아든다 말잘하는 앵무새/ 춤잘추는 학두루미 소랭이 쑥국/ 앵냉이 두리 백초리 빠우/ 소로가 남풍조차
떨쳤나니 금호리 장천 대봉새/ 무산계오 깊은밤 홀로남은 공작이/ 육부옛님 계신데 소식전하던 앵무새

-남도민요 새타령-



그림 24 동래학춤(사단법인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소장)

7) 두루미, 우리 민족의 형상

두루미의 몸은 대부분 흰색이고 둘째 날개깃과 셋째 날개깃이 검은색인데, 이 셋째 날개깃이 길게 뻗어 꼬리를 덮고 있어 마치 꼬리가 검은색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호의현상(縞衣玄裳), 즉, 흰옷에 검은 치마를 입었다고 묘사되기도 하였다. 한반도에는 삼한·삼국시대에서부터 흰 옷을 입고 흰색을 숭상하는 전통이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는 흰 옷이 항일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했다. 옛 사람들은 흰 몸통에 고고한 자태의 두루미의 모습에서 한민족과 닮은 점을 발견하고 더욱 사랑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검은 치마 흰 저고리 보기가 드물구나 신선이 있지 않으니 누구에게 돌아갈까? 행동거지는 흰칠하고 모양은 고아하며 정신은 빼어나고 깃털은 아주 섬세하네”

-이색(李穡), 목은시고(牧隱詩藁)-

“고개를 다 내려온 곳에서 성삼이는 주춤 발걸음을 멈추었다. 저쪽 벌 한가운데 흰 옷을 입은 사람

들이 허리를 굽히고 섰는 것 같은 틀림없는 학 떼였다.”

-황순원, 학(1953)-

8) 두루미, 부부 금슬의 상징

두루미는 평생 한 배우자와 살고 새끼가 독립할 때까지는 함께 보호하고 돌보는 특성이 있다. 성혼을 기념하며 선물하는 그림 또는 문양에 두 마리 두루미를 그려넣는 것은 부부가 해로하라는 동춘(同春)의 뜻을 담고 있다(정민 2014). 혼례 때에는 일반에게도 흥배가 허용되었는데 주로 쌍학흥배를 착용하였다²³⁾.

“남편 두루미가 긴 여행 끝에 죽자 부인 두루미는 황량한 철원 들판에서 이레 밤낮을 울부짖다 남편 옆에 탈진해 쓰러졌다. 수색중대 병사들은 두루미 한 마리가 꼼짝없이 한 장소를 맴돌며 쓰러지자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에 이 변고를 기별했다. 회원들이 달려왔을 때 두루미는 눈을 감고 신음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남편 두루미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남편의 임종을 지키던 암두루미는 남편의 시신을 지키다 그 옆에 누워 죽음을 기다렸던 것이다.”

-1992년 12월, 철원 민통선 두루미 부부 목격담(전영재 기록)-

나. 두루미에 대한 전통 지식

두루미와 두루미에 대한 전통 지식은 상징이 아닌 생물로서 두루미가 어떻게 인식되었는가를 보여준다.

1) 성질

- 학은 성품이 음(陰)을 좋아한다.²⁴⁾

2) 사육

경제적 목적 등으로 야생동물을 기르는 방법에 대한 기술이 남아 있다.

- 학을 기르려면 반드시 사슴으로 벼를 삼아주어야 이 기운이 서로 부합하고, 또한 도(道)의 기운을 기를 수 있다. -신은지²⁵⁾-
- 학을 기르는 데는 오직 울음소리가 맑은 것을 최고로 치며, 긴 목에 다리가 멀쑥한 것이 좋다 -산림경제-
- 학을 집 안에서 기를 때는 반드시 물과 대나무를 가까이 두고 물고기와 버를 주어야 한다'고 썼다. -산가청사-
- 소는 밭을 갈고 말은 물건을 실어 나르며, 닭은 새벽을 알리고 개는 도둑을 지키며, 양·돼지·물고기·오리 등은 요리 만드는데 충당된다. 가축 기르는 방법을 깊이 이해하면 이익을 얻어 돈을 벌 수 있다. 때때로 학·사슴·자원양·원(元鳥)을 벗삼아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도 괜찮다.
- 학이 병들었을 때 뱀이나 쥐 또는 보리[大麥]를 삶아 먹인다 -신은지²⁶⁾-

3) 식용

- 금·은으로 생선·고기·국수·떡 위에 칠한다. 잔치 자리에 두루미·날기러기를 찬으로 하지 않으면 결례

23) 신혜영, 홍나영 (2007) 풍속화에 나타난 혼례용 단령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5(6): 939-951

24) 정종우 외 (2016) 해제로 보는 조선시대 생물자원 3 조선후기①(18세기). 국립생물자원관

25) 고농서국역총서14-해동농서-Ⅱ(海東農書)

26) 친환경농업을 위한 전통지식 기술 모음집(축산) (2010) 농촌진흥청

(缺禮)로 여긴다. -해행총재 해사록-

4) 수공예

- 시치미를 만들 때 대나무 또는 우각(牛角)을 얇게 깎아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를 쓰고, 두루미 또는 거위의 흰 깃털을 두 개 길게 달아매는데 이 흰 깃털은 매가 하늘을 날 때도 잘 보이도록 하고 매의 행방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시치미는 매의 꼬리에 부착하는데 매가 비행할 때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고 길이는 매의 꼬리보다 길어야 한다.
- 학(鶴)의 뼈로 피리를 만들면 그 소리가 아주 맑고 멀리 간다²⁷⁾.

5) 날씨 예측

- 학이 크게 울면 날씨가 맑으므로, 세간에서는 이 울음소리가 ‘도롱이를 팔겠다는 소리’라고 말한다²⁸⁾.

다. 과거 지명과 두루미의 분포

구한말지도에서 ‘학 학(鶴)’자를 포함한 233개 지명은 결합한 어미에 따라 행정지명 1개, 자연지명 24개, 인문지명 208개로 구분되었고 자연지명은 산지 22개, 고개 2개로, 인문지명은 취락지명 202개, 참, 교량을 포함한 교통지명 4개, 사찰과 누정을 가리키는 문화지명 2개로 구분되었다.

‘학 학(鶴)’자를 포함한 233개 지점의 위치 정보를 지도에 중첩한 결과, 두루미의 이동 경로와 유사하게 나타났다(그림 26, 27). 이는 두루미류의 위치 정보를 이용해 밀도 예측한 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났고 백로류의 위치 정보를 이용해 밀도 예측한 결과와는 차이가 났다. 두루미류와 백로류의 위치 정보는 비공개 자료이며 2021년 현재 기준, 10년 이내의 출현 지점 기록을 이용하였다. 백로류는 전국에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그림 26) 구한말까지 ‘학(鶴)’자가 지명에 남아있던 지역은 백로류의 서식지라기보다는 두루미류의 서식지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27) 고농서국역총서6-증보산림경제Ⅲ(增補山林經濟)

28) 고농서국역총서1-색경(穡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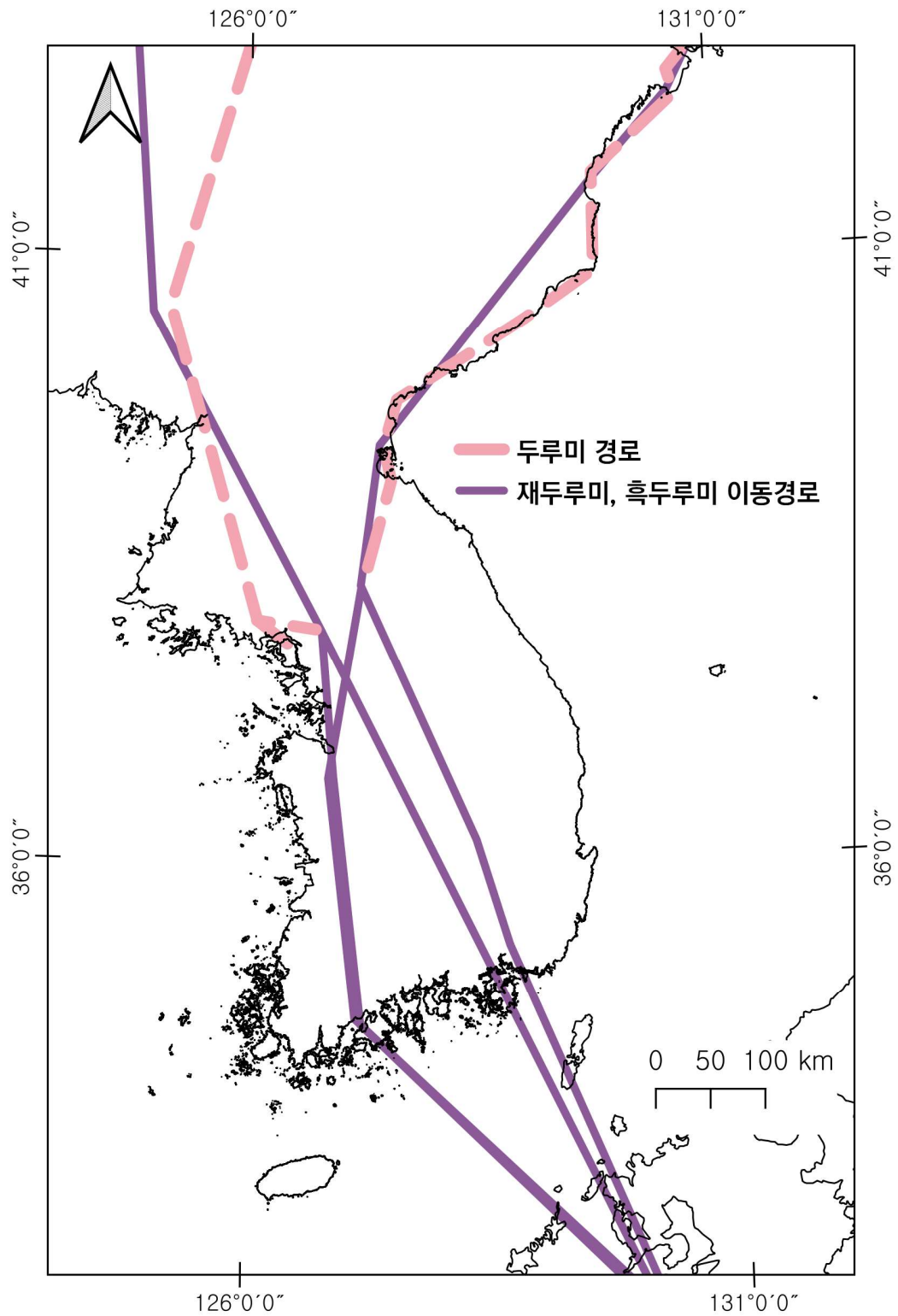


그림 25 두루미류의 이동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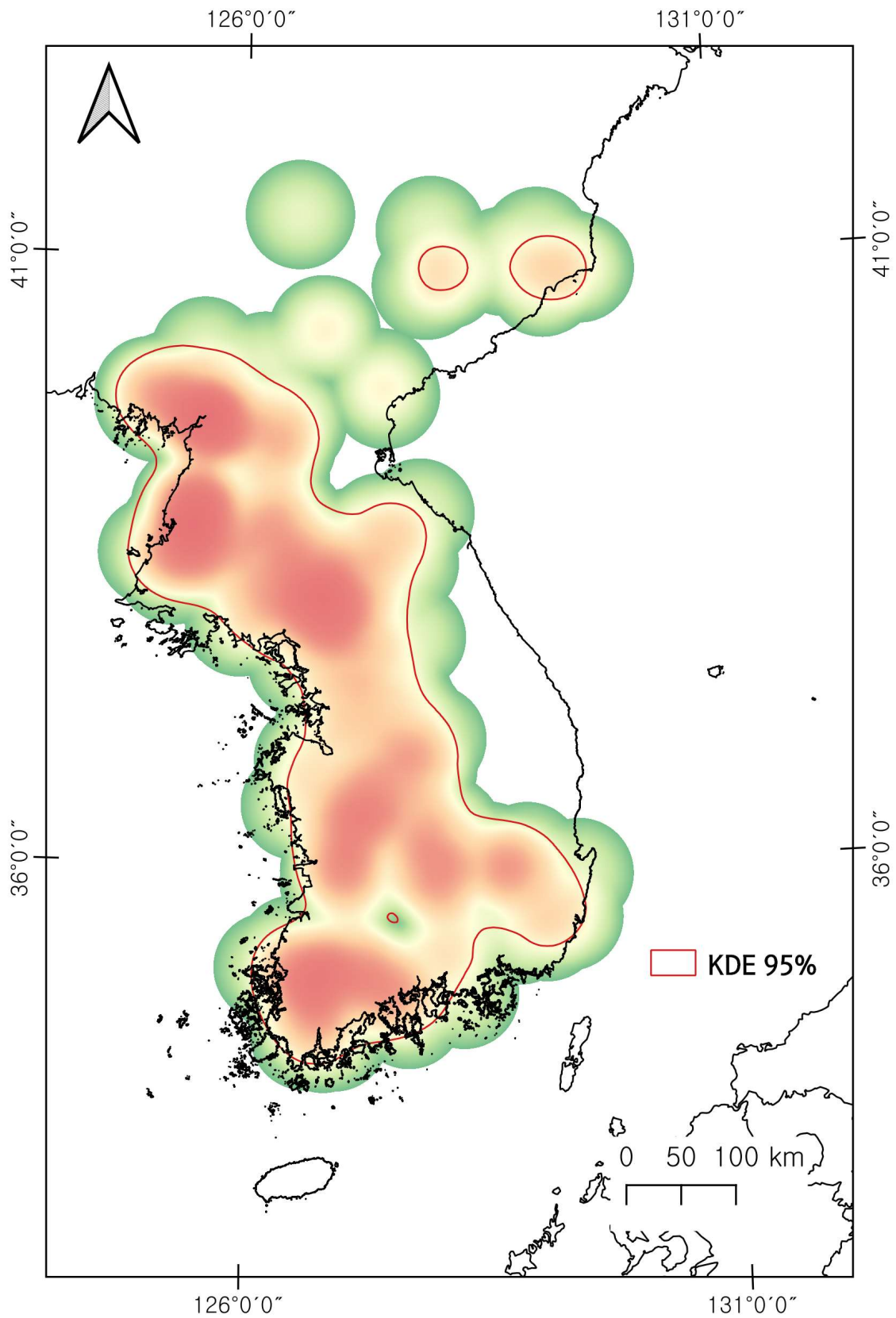


그림 26 구한말 ‘학(鶴)’자가 들어간 지명을 근거로 한 ‘학’의 커널 밀도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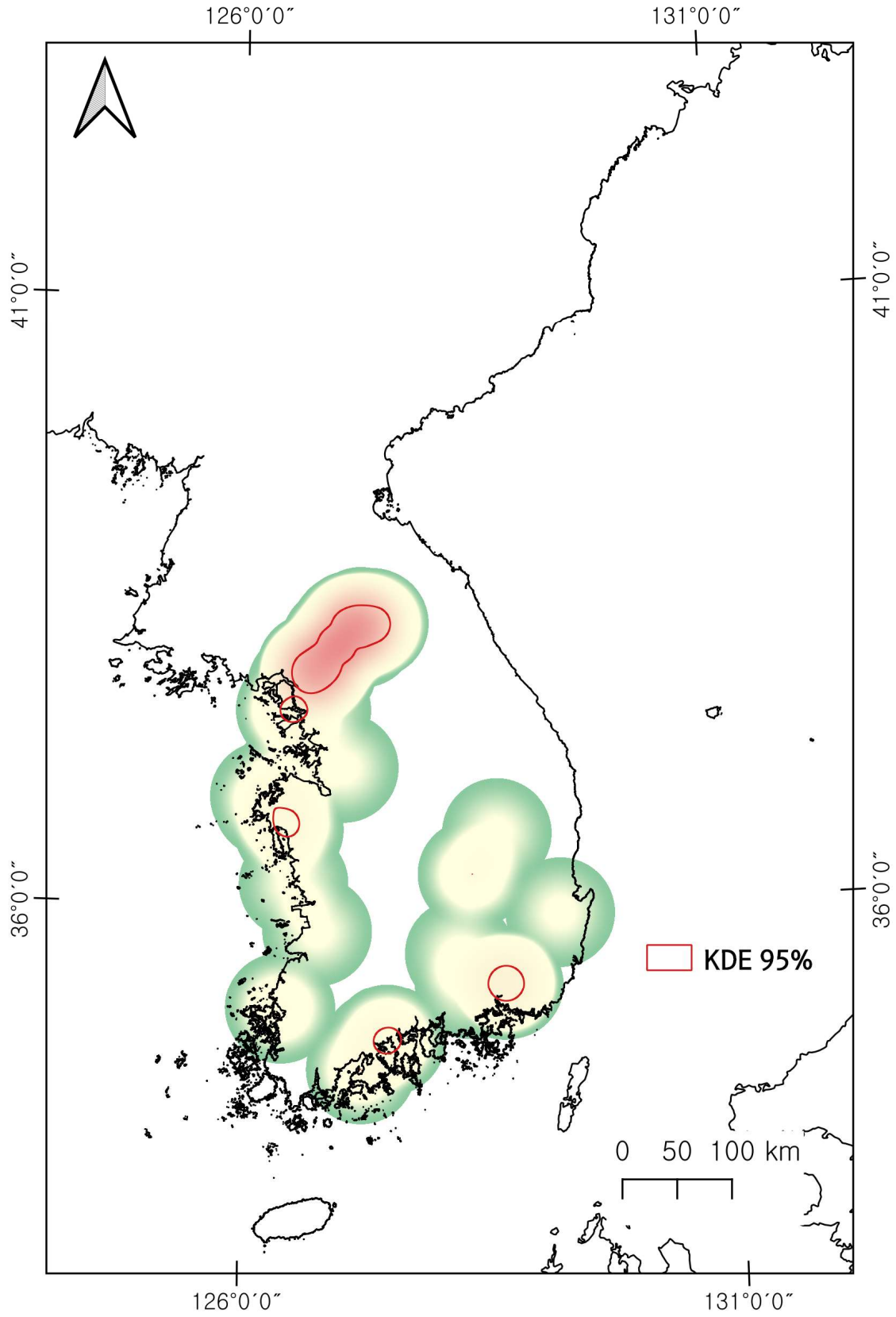


그림 27 두루미류 분포 자료를 근거로 한 커널 밀도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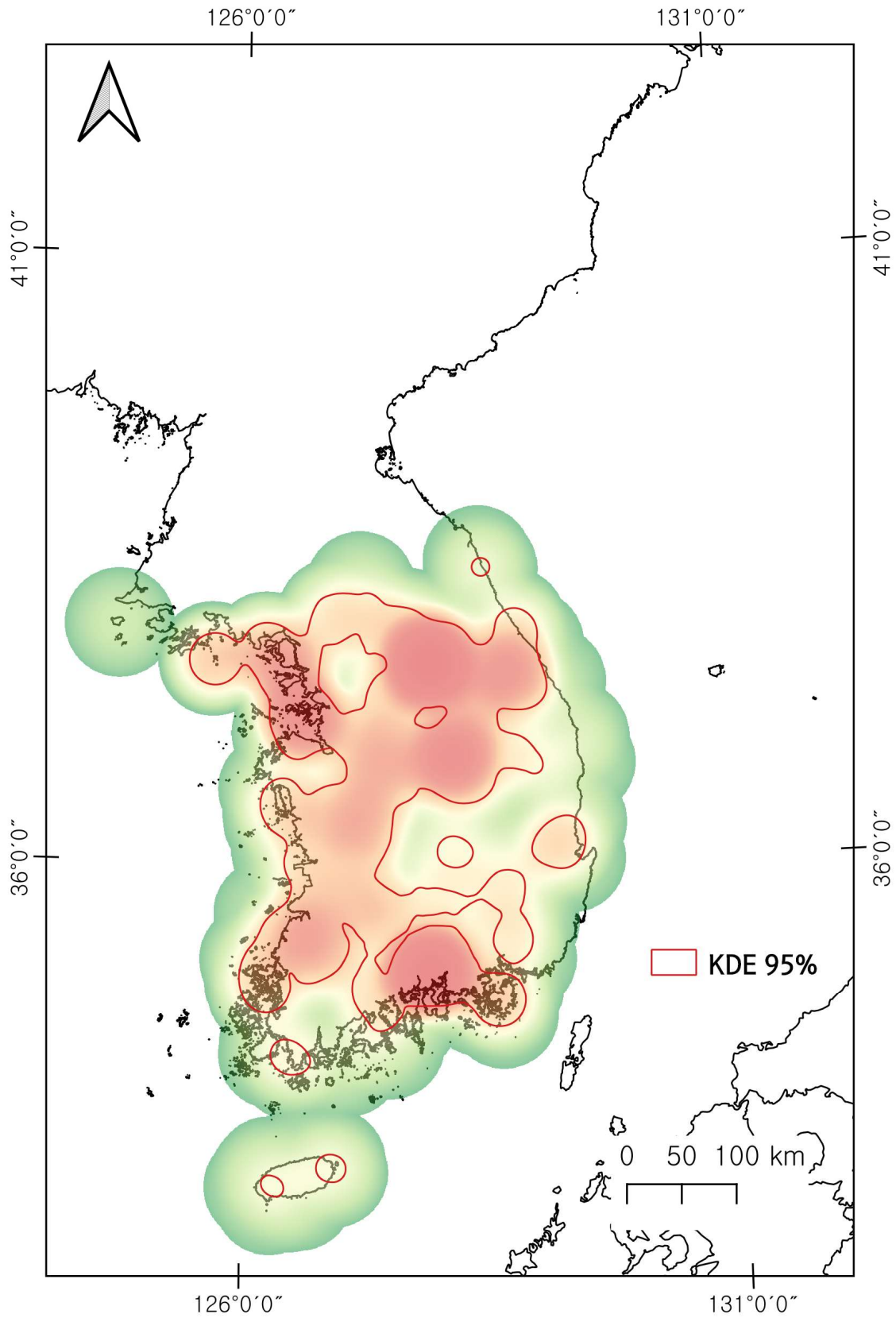


그림 28 백로류 분포 자료를 근거로 한 커널 밀도 추정

라. 두루미에 대한 현재의 인식

1) 두루미는 길조

면담에 참여한 파주와 철원의 구술자들로부터 두루미가 ‘길조(吉鳥)’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왜 길조라고 알고 있었는지 물었을 때 사람들은 ‘이유는 모르지만 예로부터 길조라고 했다’고 답했다.

“수놓을 때 학을 많이 그렸잖아.. 깨끗해보이고 선비 모습 징표라고 하고.. 학을 신성하게 생각했지.. 그림에도 있고. 시집장가 갈 때 옷에다 학을 그렸지.. 두루미는 아직 많은데 학이나 황새는 (수가) 더 적어..”

-파주 민통선 주민(86세)-

파주와 철원 주민들 모두 두루미가 천연기념물로 보호받는다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나 파주에서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두루미를 해하지 않았다고 구술한 반면에, 철원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빈곤했던 시절에 천연기념물 여부와 상관없이 야생 조류를 사냥하였으며 두루미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구술하였다. 파주 주민들은 참새, 꿩, 토끼를 사냥했고 즐겨 먹었으나 야생동물 중 사냥 대상은 정해져 있었고 두루미, 백로와 같은 ‘흰 새’는 먹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비무장지대 설정과 함께 미군이 주둔한 접경지역 특성상 파주와 철원에는 미군에 관한 기억이 있었는데, 파주에서는 미군이 깨끗하고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한 반면에, 철원에서는 미군도 사냥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두루미가 우리 눈에 오는 것이 자랑스럽지요. 두루미를 살리는 것은 많은 생물을 함께 살리는 일이기도 하고요. 해마다 오는 두루미를 나는 명절마다 돌아오는 식구로 생각해요. 실제로 같은 데서 나는 밥을 나눠먹기도 하니까..”

-철원 민통선 주민(60세)-

“두루미는 철새야.. 두루미를 무슨 수로 잡아? 그리고 그런 다리 길고 장거리 하는 새는 먹을 것도 없게 생겼고.. 참새, 꿩 이런 것은 잡아먹기도 했지만..”

-파주 민통선 주민(연령 미상)-

“철새는 안 잡았지.. 잡기도 힘들지만 잡을 생각도 안 했어.. 주로 꿩, 참새, 토끼 이런 잡아먹던 것만 먹었지.. 철새니까.. 손님처럼 귀하게 생각했는지..”

-파주 민통선 주민(86세)-

2) 두루미와 황새, 백로류

몸체의 넓은 면적이 흰색이라는 점에서 두루미와 유사한 황새와 백로류에 대해서는 두루미에 대한 이야기보다 구체적인 구술을 얻을 수 있었다. 파주 주민의 진술에 따르면, 두루미는 겨울에 잠깐 있다가 다시 날아가며 사람 가까이 오지 않고 사람을 피해 다니는 반면에 황새는 마을의 나무 위에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키우고 날아가는데 예로부터 황새가 있는 마을은 복이 들어온다고 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황새는 길조라고 그랬어.. 마을에 와서 집 짓고 새끼 치면 그 동네가 부자가 된다고 들었지.. 큰 나무에 집을 지어.. 개구리와 뱀을 잡아 새끼한테 먹여서 주위가 지저분해.. 도내리에 심씨 종가가 있는데 거기 황새가 집을 지었어.. 심씨가 그 때는 번성했는데 황새가 떠나고 번번찮아졌지...애들은 황새 둥지에서 알 꺼내 가져 먹기도 했는데.. 동네 어른들한테 혼나고 그랬어.. 장난으로 그런 거지 뭐.. 배고픈 시절이라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

-파주 민통선 주민(86세)-

“사람들이 황새에 대해 기억하는 것은 많지요.. 황새는 민가 가까이에 살았고 또 동지를 만들어서 번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친숙하게 생각하지요..

-철원 민통선 주민(연령 70세)-

“백로는 덩치가 더 작고 사철 여기 있지.. 그리고 백로는 흔하지 학은 귀해.. 학은 농사를 방해할 일이 있지.. 겨울에 오니까.”

-파주 민통선 주민(86세)

3) 전통 인식 전승 중단

면담에 참여한 파주 진동면 주민들은 ‘두루미’에 여러 종류가 있다고 구술했고 일반적으로 ‘두루미’라고 함은 ‘재두루미’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두루미’는 ‘흰두루미’ 또는 ‘검은두루미’라고 지칭하였고, 연구자가 ‘학’을 언급하면, 구술자가 곧이어 ‘학은 수가 적다’고 언급하여 ‘학’은 ‘재두루미’가 아닌 ‘두루미’를 가리킴을 알 수 있었다. 파주 민통선과 임진강변에는 두루미보다 재두루미 개체 수가 많다. 두루미 국내 최대 월동지인 철원에서 ‘두루미’는 ‘두루미’로 지칭하였고 철원 주민들은 과거에 두루미를 가리킬 때 ‘두루미’라고 했고 ‘학’이라는 표현은 낯설어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고문헌을 번역한 자료 중에도 두루미와 학이 다른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 경우가 있었다(표 2). 학은 두루미의 한자어이지만 다르게 해석되었고 심지어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묘사되었다. 두루미로 해석된 한자 鵠가 사전에서는 황새과에 딸린 물새 ‘무수리’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두루미가 아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잘못된 인식을 고착화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두루미와 학에 대한 묘사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두루미와 학의 생태 또는 일반적인 상징성과 상당히 다른 점은 두루미에 대한 인식이 생태가 아닌 상징성 위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고문헌에서 두루미와 학을 구분해서 해석한 사례

본문	출전	번역정보
옛날 시(詩)를 지은 이가 두루미[鵠]로써 첩(妾)에 비하고 학(鶴)으로써 적(嫡)에 비하여, 그 시에 이르기를, ‘두루미는 어살[梁]에 있고 학은 숲속에 있네.[有鵠在梁 有鶴在林]’라고 한 것은 적자와 서자의 차례 잃은 것을 풍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미의 새끼는 학의 새끼와 더불어 같은 무리가 될 수 없고, 첩의 소생은 사대부(士大夫)와 더불어 같은 반열이 될 수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성종 1년 경인(1470) 12월 19일(임술) 사간원 대사간 김수녕 등이 상소하여 강대생의 관직을 고칠 것을 청하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성종실록》, 김상조 역, 1980년
정현(鄭玄)의 《시경》 전(箋)에 ‘고기[魚]의 성품은 추우면 깊은 물로 도망해 간다.’ 하였고, 또 ‘두루미의 성품은 탐악(貪惡)하다.’ 하였으며, 또 ‘능에[犖]의 성품은 나무에 앉지 않는다.’ 하였고, 또 ‘사슴[麋鹿]의 성품은 산림(山林)을 좋아한다.’ 하였으며, ‘평의 성품은 번룡(樊籠)을 싫어한다.’ 하였습니다.	다산시문집 19권 이여흥에게 답함 병자(1816, 순조 16년, 선생 55세)	번역대본은 신조선사본(新朝鮮社本 1936, 활자본), 규장각(奎章閣) 소장 《與猶堂集》을 참고, 정태현 역, 1986년

금강산 속에 두루미보다 큰 새가 살고 있다. 푸른 바탕에 붉은 이마를 지녔고 암수 한 쌍이 날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새를 학이라 이른다.	봉래비서(蓬萊祕書) 금강산(金剛山)의 유래와 고사-울곡(栗谷) 이이(李珣) ‘풍악산에서 본 것을 읊다’	규장각 소장 《임하필기(林下筆記)》, 김동주 역, 2000년
---	---	-----------------------------------

구술자들은 파주와 철원은 한국전쟁의 격전지로, 과거에 두루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거치며 전승되는 규범 또는 인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우리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두루미 뭐 그런 거 관심 있었겠나.. 새가 있으면 있나보다 하지.. 아무 들은 것도 없고 그래”

-파주 동파리 농민(연령 미상)-

“처음에 통일촌 들어왔을 때는 두루미도 많았지.. 그런데 그 때야 뭐 귀한 줄 알았나.. 지금에야 귀하다고 하니 알지.. 두루미만 많은 게 아니고 토끼도 많고 뱀도 많았어..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파주 통일촌 주민(연령 미상)-

“두루미에 대한 과거 인식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얘기 해줄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이곳(철원)은 한국전쟁의 피해가 커서.. 인식이 있었어도 전승이 안 될 거예요..”

-철원 지역 전문가(연령 70세)-

4) 두루미에 대한 현재의 인식 종합

① **천연기념물 두루미:** 파주 민통선의 주민들은 현재 두루미의 지위를 천연기념물로 규정하였다. 두루미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법률 제재가 생겨났고 새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고 진술하였다. 두루미 고기를 우연히 먹었다가 천연기념물을 잡았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걱정하기도 하였다.

② **학의 시대에서 두루미의 시대로:** 조류 전문가는 두루미와 학이 같은 새이지만,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보니 학의 상징성이 두루미에게 적용되지는 않고 있음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전쟁과 산업화 등으로 두루미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계승이 단절되었거나 미약했기 때문에 현재 세대에게 두루미는 멸종위기종으로 인식될 뿐, 과거 학이 가졌던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다.

③ **두루미, 혼동하지만 누구나 이름은 알고 있는:** 백로를 두루미로, 왜가리를 재두루미로 알거나, 두루미와 학은 다른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두루미에 대해 적으나마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두루미 또는 학은 여러 가지 설화, 우화 등 이야기로 대중에게 친숙한 이름인 만큼, 인식 증진을 위해 조금만 노력하면 깃대종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미약하지만 현재도 남아있는 두루미의 상징성:**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두루미를 상징물로 채택하고 있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고자 하는 만큼, 두루미의 상징성은 현대에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두루미가 찾아온다는 것이 지역의 가치가 되고, 지역은 두루미를 통해 지역 홍보 효과를 얻고 관광수입을 올리려고 한다.

⑤ **두루미 관광자원화:** 철원의 지역 전문가는 철원에서 두루미를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인적이 드문 민통선 내 토교저수지와 한탄강에 수많은 철새들이 머물고 두루미들이 잠을 자는 것이 유명세를 타면서부터였다고 전했다. 새들이 예로부터 철원에만 많았던 것은 아닐 테지만 새들이 휴식할 큰 습지가 있고 사람의 간섭이 적은 지역이라서 현재까지도 수많은 물새, 철새들이 해마다 철원을 찾아온다. 철원의 농부들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해마다 많은 새들이 찾아오지만 관광객이 늘어날수록 새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환경이 되어가고 철원 농경지에는 매년 비닐하우스와 대규모 축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생태관광은 교육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 대중 인식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두루미의 서식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소규모로 관광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두루미의 강력한 상징성은 종의 외형적 특성과 생태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화적 측면에서는 대체로 생물로서 인식되기 보다는 상징으로서 소비되는 경향을 보였다. 두루미의 생태에 관한 지식이 활용된 영역은 두루미를 사육하고자 했던 경우와 두루미를 식품 또는 공예품의 재료로 활용하고자 했던 경우에 불과하였다. 다만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두루미를 귀하게 여겼지만, 일본에서는 고위 계급에 진상품으로 두루미를 바치기 위해 사냥을 일삼았던 것과 달리, 한반도에서는 두루미에 대한 사랑과 공경이 두루미를 함부로 잡거나 먹지 않고 보호하는 효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루미와 공존하기 위한 전통생태지식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물리적 공존을 위한 전통 지식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두루미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두루미의 존재에 대응하는 행동 양식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생태적 특성상 사람을 가까이하지 않기 때문에 두루미를 관찰하여 사람의 생활에 적용할 만한 통찰이 발달하지 못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전통생태지식은 대개 구전된다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전쟁과 산업화로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야생동물과 공간을 지혜롭게 나누어 쓰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발견하지 못해 아쉽지만, 우리 전통에서 두루미는 생물이기보다는 상징으로 주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두루미와 인간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루미의 상징성은 두루미 본연의 모습에서 비롯한 것으로 두루미의 외양과 생태에 대한 감명이 상징으로 발전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두루미가 사람과 떨어져 골짜기에 은둔하며 지내는 모습은 세속에 연연하지 않고 고고함을 지키는 은자와 같아 두루미에 대한 환상과 동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두루미의 생태적 특성이면서, 사람이 두루미와 공존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인 셈이다. 장수라는 상징성도 마찬가지이다. 서식 환경이 급변하며 생존이 어려워진 요즘, 두루미가 과거와 같이 장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 사람의 기대수명이 늘어 더이상 두루미를 보면서 장수를 동경하지는 않겠지만, 한때는 장수의 상징이었을 만큼 자연수명이 긴 동물이 제 명을 살지 못하는 것은 비극임에 틀림없다.

한편, 두루미와 흰 새들을 구분하는 건에 대해서는, 선조들이 두루미, 백로, 황새를 명확히 구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을 직접 볼 수 없었던 지역에서는 혼동이 있었을 가능성 또한 충분했을 것이다. 임포가 그려낸 선비의 정취에 대한 감동과 이상이 조선의 학자들에게 수없이 회자되었듯이 과거는 글로 모든 지식과 인식이 전해지던 시대였다. 송학은 장수를 기원하는 상징적 조합이지만 실제로 소나무 위에 앉는 흰 새들이 있었다. 실제로 두루미와 황새, 백로를 보며 배우지 못했다면, 백로나 황새가 상소문의 그 ‘송학’이었을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인식 증진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생물을 교육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요즘은 글로만 배우는 시대가 아니지만 현장에서 마주치는 생물의 감동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은 없을 것이다. 두루미만 좇을 필요도 없다. 주변에 있는 생물부터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두루미만 고귀하고 황새와 백로는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을 이해하며 다양성이 공존하는 데서 오는 재미와 가치를 알아가는 교육이 진정한 생태계 보전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학(鶴)’을 포함한 지명과 두루미 서식지에 대한 분석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면담에서도 나타났듯이, 재두루미가 많은 파주에서 ‘두루미’는 재두루미이고, 예술작품 등에 등장하는 ‘학’은 두루미였다. 한편, 일화와 전설이 전하는 지역이 가까운 황새와 파주에 흔한 백로를 두루미와 혼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루미를 보기 힘든 지역에서는 황새를 ‘학두루미’라고 하기도 했다. 김경원²⁹⁾에 따르면 19세기 말에서 한국전쟁 이전 전국에 두루미류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 지명의 유래에 관한 검토와 서식 환경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29) 김경원 (2014) 동북아 멸종위기종 두루미류 월동지 비오톱 특성 및 보전방안 연구 -한반도 월동지를 대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본 연구에서는 상징성을 고찰함으로써 두루미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을 이끌어내었다. 하늘을 나는 새에 대한 동경은 근원적이다. 선조들이 두루미에게 신선의 자취를 보았듯 두루미의 땅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우리도 예의 그 학을 만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연하장에, 오백원짜리 동전에 두루미가 남아 있고, 계속하기 쉽지 않지만 명맥을 이어가는 학춤 전승자들이 남아 있다. 우리 생활에 아직 남아 있는 ‘학’의 흔적이 고매한 정신, 행복과 같은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는 두루미가 살아야 한다. 두루미에게서 천상의 아름다움과 함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한 옛 사람들이 두루미가 인간계와 선계를 연결했다고 믿었던 것처럼, 하늘을 통해 이 땅과 저 땅을 잇는 새를 귀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인식한다면 이 땅에서도 선계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오랜 길상의 상징, 두루미를 통해 다시 새들을 볼 때다.

5. 참고문헌

1. Berkes et al. (2000) Rediscovery of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as adaptive management. *Ecological Applications*, 10(5): 1251-1262
2. Berkes, Davidson-Hunt (2006) Biodiversity, traditional management systems, and cultural landscapes: Examples from the boreal forest of Canada.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8: 35-47
3. BirdLife International (2021) Species factsheet: *Grus japonensis*. Downloaded from <http://www.birdlife.org> (접속일자 2021년 12월 1일)
4. Crutzen and Stoermer (2000) The Anthropocene. *Global Change Newsletter*, 41
5. Gómez-Baggethun, Reyes-García, Olsson, Montes (2012)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and community resilience to environmental extremes: a case study in Doñana, SW Spain.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2: 640-650
6. Haraway (2015) Anthropocene, Capitalocene, Plantationocene, Chthulucene: Making Kin. *Environmental Humanities*, 6(1): 159-165
7. IUCN Nature-based Solutions. <https://www.iucn.org/theme/nature-based-solutions> (접속일자 2021년 12월 1일)
8. Kim, Park, Kim, and Lee (2021) Identifying high-priority conservation areas for endangered waterbirds using a flagship species in the Korean DMZ. *Ecological Engineering*, 159(5365)
9. Society for Ecological Restoration. <https://www.ser-rrc.org/what-is-ecological-restoration> (접속일자 2021년 12월 1일)
10. UNEP (1992) Guidelines for Country Studies on Biological Diversity
11. 고농서국역총서1-색경(穠經)
12. 고농서국역총서6-증보산림경제Ⅲ(增補山林經濟)
13. 고농서국역총서14-해동농서-Ⅱ(海東農書)
14. 김경원 (2014) 동북아 멸종위기종 두루미류 월동지 비오톱 특성 및 보전방안 연구 - 한반도 월동지를 대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15. 박정애 (2012) 조선 후기 회화에 나타난 鶴의 이미지와 표현 양상. *미술사연구* 2012(26): 105-137
16. 신혜영, 홍나영 (2007) 풍속화에 나타난 혼례용 단령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5(6): 939-951
17. 정민 (2014) 새 문화사전. 글항아리
18. 정종우 외 (2016) 해제로 보는 조선시대 생물자원 3 조선후기①(18세기). 국립생물자원관
19.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시스템 <https://www.atlaskorea.org>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 조성욱 (2007) 사회적 영향에 의한 지명변화의 원인과 과정 - 전북 진안군 지명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5): 526-542
21. 조용진 (2014) 동양화 읽는 법. 집문당
22. 친환경농업을 위한 전통지식 기술 모음집(축산) (2010) 농촌진흥청
23. 허균 (2019) 선비의 기풍과 불로장생의 투영체. 월간민화
24. 허균 (2006) 허균의 우리 민화 읽기. 북폴리오. 서울
25. 홍형순 (2020) 조선시대 궁궐에서의 양학(養鶴) 사례.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8(3): 1-10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재)숲과나눔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